



금호고속은 지난 1946년 중고택시 2대(포드 디럭스 35년형·내수 33년형)를 구입, '광주택시'라는 시명으로 사업의 첫발을 내디뎠다. (오른쪽 아래) 금호고속이 호남을 상징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광주시 서구 광천동에 지은 금호고속터미널 전경. /나경주기자 mjna@kwangju.co.kr



### 금호그룹의 모태 금호고속 매각 왜?

# 알짜기업 팔아 유동성 확보

### 경영 정상화되면 되사게 콜옵션 조항 달아

워커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그룹의 모태이자 실질적 지주회사인 금호고속(금호산업 고속사업부)까지 매각하려는 이유는 알짜기업을 희생해 그룹을 살리려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현금 흐름이 양호한 알짜기업을 팔아 그룹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금호고속은 국내 고속버스 시장의 29.3%(2010년 말 기준)를 점유한 업계 1위이자, 브랜드 파워 10년 연속 1위 기업이다. 지난해 금호산업의 총매출 2조2037억원 중 금호고속은 15%인 3267억원을 차지했다. 금호건설(건설사업부)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금호건설이 지난해 1378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반면 금호고속은

52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금호고속의 매각에는 주택경기 침체로 금호건설의 적자가 확대되면서 금호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원가 하락에도 주택사업 관련 대손상각비가 확대돼 판매비·일반관리비 부담이 늘면서 금호건설의 영업손실이 확대됐다. 상대적으로 알짜인 금호고속을 매각하면 금호산업은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금호고속은 금호그룹의 모태이자 실질적 지주회사여서 그룹 경영이 정상화되면 되사올 수 있도록 콜옵션 조항을 달기로 했다. 구체적인 매각액수와 물적분할 후 신설했던 금호고속 지분비율은 FI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실제 금호그룹은 지난 2003년에도 금호산업의 타이어사업부(금호타이어)를 FI(재무적투자자)에 매각했다가 콜옵션을 행사해 되사게 된 경험이 있다. 당시 금호그룹은 군인공제회에 타이어사업부를 1조4278억원에 팔고 신선했던 방법을 살리며 군인공제회 50%, 금호산업 30%(나머지 20%는 국내의 투자자)로 지분을 나눴다. 이후 금호그룹은 금호타이어가 재상장할 때 군인공제회 지분을 사들여, 최대주주 자리를 되찾아왔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32.80%), 금호타이어(1.18%), 속리산고속(100%), 금호리조트(50%), 서울고속버스터미널(38.74%), 청정목포환경(39%), 충주보라매(100%) 등 계열사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 지주회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중고택시 2대로 출발 '국민버스' 성장

### ■ 금호고속은

금호고속(금호산업 고속사업부)은 금호그룹의 모태이자 실질적 지주회사다. 금호그룹의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은 지난 1946년 17만엔의 자본금으로 미국산 중고택시 2대를 사들여 광주택시를 설립한 것이 첫 출발이다. 택시 운수업으로 돈을 모은 박 전 회장은 1948년 광주여객을 설립해 버스 운수업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이것이

금호그룹의 시작이 됐다. 1968년과 1971년 각각 경부선과 호남선 고속버스 사업인가를 받아 꾸준한 노선을 확장했고, 1972년에는 광주고속으로 가명을 바꿨다. 1984년 금호건설을 흡수 합병하고, 1999년 금호타이어와 함께 금호산업으로 합병했다. 2005년 경쟁사였던 코오롱고속을 인수합병했으며, 2008년 속리산고속을 인수해 사세를 키웠다. 해외진출도 활발했다. 1995년 중국

진출을 시작으로 2007년 베트남 운수 시장에 뛰어들었고, 이듬해 캄보디아 노선을 운행하기도 했다. 금호고속은 호남기업의 상징이다. 가난 때문에 서울에 간 호남인들에게 금호고속의 로고인 거북은 고향을 이어주는 존재였다. 이 때문에 금호그룹도 채권단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 내용에 금호고속 분리매각 내용이 포함돼있는 것을 함구해온 것으로 보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빛의 만평

- 김종두



한쪽은 의사봉을 제대로 쓸 줄 아는군

## 저축銀 특혜 인출 85억원 전액 환수

저축은행 특혜인출 의혹을 수사해 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사전에 유출된 영업정지 정보에 의해 부산저축은행 그룹 계열은행에서 불법 인출된 예금 85억여원을 찾아내 전액 환수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이 불법 인출된 것으로 확인한 예금은 영업정지 직전 부산저축은행에서 빠져나간 57억4600만원과 대전저축은행에서 찾아가간 27억7500만원 등 85억2100만원이다. 검찰은 일부 고객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려줘 예금을 빼내게 한 임원 3명을 업무방해·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연합뉴스

# '민생 현안'만 테이블 메뉴로

### 이대통령- 손대표 회동 어떤 얘기 오갈까 일자리·반값 등록금 등 6대 의제 한정 양측 이견 조율 땐 결실있는 만남 기대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영수회담 성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북문제나 사법개혁 문제 등 민감한 정치이슈는 아예 제외되고 의제가 ▲등록금 ▲일자리 ▲추경 ▲가계부채 ▲저축은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민생이슈로 한정되면서 일부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민생 현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청와대와 민주당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양측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반영하듯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의제가 민생 현안인데다 오랜만에 이뤄진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라는 점에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가급적 결실이 있는 만남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민생 문제에 대한 국민의 어려움을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청와대가 정치적 이해 관계를 떠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생 현안을 놓고도 양측은 양측의 이견이 적지 않아 청와대와 민주당의 줄다리기도 계속될 전망이다. 청와대에서 백운호 정책실장, 장다사로 기획관리실장이,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정책위의장, 이용섭 대변인,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이 실무 조율에 나설 예정이지만,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FTA 문제에 대한 입장 절충이 풀기 힘든 과제다. 민주당은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주당이 국회 비준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내년 전면 시행'을 내세우고 있는 반값 등록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재정 문제 등으로 여전히 고민을 거듭하고 있으며 추경 편성 문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저축은행 사태 및 가계부채 문제를 놓고 민주당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나, 청와대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 이명박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담 일지

연도	일시	주요 내용
2008	5.20	이명박대통령-손학규 대표 회담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비준 합의결정
	9.25	이명박대통령-정세균 대표 회담 = '경제 초당협력' 합의
2011	2.1	이명박대통령, 손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안(신년 방송좌담회)
	2.13	손대표, 예산안 파행 처리에 대한 대통령 사과 거부로 결렬 선언
	6.13	손대표, 영수회담 제안
	6.21	청와대-민주당, 영수회담 27일 개최 합의=6대 민생 의제 선정



www.ksfc.co.kr

## 한국증권금융과 함께 성공투자의 클라이막스에 서다!

변화가 많은 시기, 투자의 정상까지 누구와 함께 오르시겠습니까?  
한국증권금융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를 통해  
당신의 투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지원**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투자자보호**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및 보험회사로부터 채예치받은 투자자에게의 안전한 보관/관리

**중시주변자금관리** 증권사CMA자금 및 특정금융신탁자금의 예수/운용

**일반고객금융** 더 높은 한도, 더 넓은 담보의 주식담보대출, 고수익 증권청약예수금

**우리사주조합업무** 우리사주 전담관리, 우리사주를 담보로 장/지리 대출

**성공투자의 동반자**  
**한국증권금융**